

01. 교사의 기질과 선호하는 수업방식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자는 2015년 교육과정 개혁안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오던 교육계의 핵심목표였습니다.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을 잊은 채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 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은 평소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보다는 몇 배의 에너지가 듭니다. 자신이 익숙하면서 좋아하는 수업방식은 에너지가 들기보다는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서 수업하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강의식방법은 그동안 모든 수업에서 썼던 익숙한 방법이기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잘 맞는 수업방법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분명하게 안다면 삶을 몇 배나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질과 성향을 분명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다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보다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기질을 알고 어떤 수업전략이 자기에게 적합하고 어떤 수업전략은 버거운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수업전략만 쓰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수업전략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습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만 생각의 근육, 공부의 근육, 말하기의 근육을 키워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생각의 근육, 공부의 근육, 말하기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바로 교사의 기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격유형검사는 많이 해보셨을 줄 압니다. MBTI 혹은 에니어그램등을 통한 연수를 받으셨거나 검사지로 검사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우심리연구소의 U&I 학습유형의 기본성격과 일반적인 관계성을 알아보는 성격유형을 통해서 어떤 수업전략을 선호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I 학습유형검사에는 학습자의 학습행동 및 학습태도를 측정하는 '학습행동유형'과 학습자의 성격을 측정하는 '학습성격유형'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방법과 학습전략기술을 측정하는 '학습기술능력'의 세 영역이 있습니다.

'학습행동유형'은 Heacox의 이론에 근거한 학업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반항형, 적당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의존형, 잡념형, 싫증형, 만족형, 외곺형의 9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여러 가지 유형만큼 수업시간이나 학업성취도에 방해되는 요소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이 중에서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는 교사라면 수업실패의

원인이 완벽주의형이나 고군분투, 의존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하브루타식 수업은 지금의 수업시간으로는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성향의 기질을 가진 교사라면 적응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존형 성향이라면 임기응변이 약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처럼 준비를 단단히 해 가지 않으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의 질문으로 만들어가는 수업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탐구형의 성향은 외곬형이나 수업외의 다른 요소에 집중하는 방해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할 수가 있으므로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용하기가 역시 어렵겠지요. 행동형의 아이들이라면 하기 싫은 수업에 대해 수업과 관련 없는 말들로 교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습행동유형은 아이들의 부정적인 학습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질과 수업선호도에서는 교사가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학습방해요소들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습성격유형은 Keirsey & Bates(1978)의 기질론에 의한 성격유형을 토대로 구분된 것을 Golay(1978)은 4가지 기질적인 성격유형을 4가지 학습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입니다.

행동형은 전통적인 교육체계를 싫어하고 공식적인 지식체계에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과 지적인 문제에 관심이 가장 적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계획에 따라 동기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과제나 학습, 반복적인 훈련을 싫어합니다. 경쟁, 시합, 그리고 도전을 좋아합니다.

이 유형의 선생님은 움직임이 크고 활동성이 있는 참여수업, 토론수업을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떠들썩한 수업도 좋아하시겠지요. 교사의 참여도 활발할 것이고 에너지가 넘치므로 아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을 좋아하니 게임요소가 들어가는 수업전략에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동형은 학습행동유형에서 앞에 언급한 대로 반항형과 연결이 됩니다.

규범형은 반복, 훈련, 그리고 자료에 대한 단계적 제시를 통해서 사실과 절차들을 기억하고 구분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기를 좋아합니다. 절차가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해진 교실에서 학습을 더 잘하기 때문에 짜여진 일정이 바뀌면 당황하고 즉시성의 토론수업에서는 곤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좋아하므로 학습행동유형에서 완벽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는 강의식 수업형태를 가장 선호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고 불쑥 불쑥 질문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탐구형은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지혜를 축적하고 지식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하는 수업방식을 좋아하지요.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원리에 더 관심이 많да보니 교사는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알아가는 것을 선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수업방식대로 끌고 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의 교사들은 강의식보다는 주제가

분명한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수업을 더 쉽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 수업기법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교과내에서 더 깊은 원리와 적용이 가능한 연결 즉 융합수업의 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수업디자인을 가장 잘 만들어 갈 수도 있는 탐구형은 학습행동 유형에서 외곬형과 잡념형과 연결이 됩니다.

이상형은 미래지향적인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구형이 현상의 원리에 주목한다면 이상형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갑니다. 사람속에서의 가능성을 더 엄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과내용에서도 인간관계등 삶의 의미를 주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요즈음의 학생들의 언행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큼니다. 교실에서나 집에서 아이들의 말이 매우 거칠어져서 토론수업에서도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수업방식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쫄깃해지는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에 민감하므로 아이들의 성향이나 순간적인 끼등을 발견해주고 공감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데는 탁월한 기질입니다. 상처와 발견의 기쁨이 가장 큰 폭으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형은 학습행동유형의 의존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만으로 사람의 성격이 규정되어지는는 않습니다. U&I에서는 기본 4가지 성격유형을 조합하여 1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한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질을 알아가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본성격으로는 행동형과 탐구형은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전략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 유형을 좀 더 비교해보면 행동형은 깊이가 있거나 원리를 탐구하면서 집요하게 늘어지는 토론에는 약합니다. 반면 탐구형은 가볍거나 초점이 없는 토론, 하나하나 한 토론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규범형과 이상형은 토론수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 토론이 몸에 배이지 않고 도입단계의 수업형태이므로 구조화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을뿐더러 무엇을 배웠는지 잘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더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성격들은 서로 조합을 해서 한 가지 유형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4가지 유형을 포함해서 행동-규범, 행동-탐구, 행동-이상, 규범-이상, 규범-탐구, 탐구-이상, 행동-규범-이상, 행동-규범-탐구, 행동-탐구-이상, 규범-탐구-이상등 1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 더 많은가를 살펴보면 막연하게 이런 수업이 싫다 어렵다 혹은 이런 학생이 싫다 좋다는 벗어나 객관적으로 수업에서 강약을 주면서 강의식과 토론식, 교사주도, 교사참여, 학생참여등 다양하게 수업전략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메타인지 수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기질에 해당이 되시나요?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 교실에서의 수업전략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기질즉 학습유형과 학습행동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2. 학생의 기질과 선호하는 수업방식

같은 기질과 유형이라도 교사와 학생의 행동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통제와 교실이라는 강제적인 장소와 시간의 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행동유형 9가지를 보면서 이미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얼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시지 않으셨나요. 수업회피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들의 핵심만 드러내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문젯거리가 되는 것들이죠. 이런 학습행동유형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 학습성격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습성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성격의 (-)부분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기본성격유형을 알면 수업회피의 행동의 원인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 알아주기가 쉽습니다.

학습행동유형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기본 학습성격유형으로 학생들의 수업선호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형은 자유가 기본욕구입니다. 신체적인 활동을 추구하며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황 속에서 뭔가 하기를 좋아하고 현실을 즐기며 남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유학기제등의 체험활동도 단순한 견학이나 공부위주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강의법은 이런 성격유형에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수업시간에 산만해보이고 장난스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발표하는 수업, 즉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수업형태를 가장 선호합니다. 시청각자료의 효과는 좋지만 짧은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용은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과 호기심을 충족하는 수업 즉 교과내용이 실생활과 적용을 하는 질문으로 참여하는 수업형태는 이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질문하는 수업은 시끌벅적합니다. 그 대부분 이 행동형의 아이들의 목소리가 크기때문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은 금방 발견을 하실 것입니다. 질문으로 참여하는, 교사주도형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주도형의 가장 수혜자는 바로 이 행동형들일 것입니다. 이 행동형의 아이들이 행동형의 교사를 만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순차적인 토론은 기존의 디베이트수업이지만 질문하는 하브루타식의 수업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가 기본욕구인 이 아이들은 물을 만난 물고기가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자유만 허용되기 보다는 질문하는 수업의 규칙이 필요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업의 규칙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알려주는 것 보다 토론을 해서 결정하면 잘 따르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의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잘 합니다. 행동형은 깊이가 있는 사고는 어려워하고 순간몰입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몰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수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싫증을 잘 내는 성격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과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규범형은 잘 구조화된 상황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인 질문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무조건 자유만 허용한다면 아이들이 배울 권리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보이지 않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통제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야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교사의 이야기들 잘 들어야 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의 큰 통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행동형의 아이들에게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짝이는 순간적인 재치를 잘 붙들어 두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르쳐야 하기 위함이고, 규범형의 아이들에게는 자유분방함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흐름이 잘 흐르는 물처럼 어느 순간 바다에 간 순차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예측이 없다면 규범형의 아이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시끄러운 교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규범형의 교사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리고 예의가 없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규범형의 아이들은 노트정리도 잘 할 뿐더러 규칙을 지키는 데도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한다면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의 능력과 끼를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흐름이 되어 만족스럽게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질과 성격에 따라 지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범형은 다른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제한다는 것은 잘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시간관리를 도와주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규범형은 친구들의 질문과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 확장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완벽기질에서 유연한 사고를 친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탐구형은 스스로 익혀서 강의를 잘 따라가는 스타일입니다. 교사가 제시하는 데로 따라가기 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원리를 꿰뚫어서 연결하는 공부를 잘 합니다. 외곬의 성격이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최고의 성적을 낼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손도 대지 않는 고집도 부릴 수 있습니다. 4차원이라는 말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 질문하는 수업에서는 그 위력을 단단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규범형이 교과내용이나 간단한 수업적용등의 질문을 한다면 탐구형은 매우 깊은 내용까지 질문을 만들고 다른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스스로 공부한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질문수업의 아이디어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강의식 수업시간에는 이런 능력이 거의 드러나지가 않지요. 4차원의 질문으로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하브루타식 수업에서는 이런 성격유형의 도움을 톡톡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내는 의문이 많기 때문에 행동형과 더불어 질문식 수업,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수업에는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형은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사의 눈길 하나에도 행동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만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는 강의식의 수업에서는 발표를 잘하거나, 과제를 잘 수행하는 혹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눈길을 주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교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조용히 수업을 통제하며 이끌고 가야한다는 수업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형은 사람에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에서는 처음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 곧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

터 참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 봤는데 6월 달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친구가 질문을 만들기도 하고 친구가 만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주변의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질문의 힘과 이야기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마 그 친구는 이상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시선접촉이 매우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진다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아이들입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많은 아이들이므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함께 하는 수업에서 남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에 익숙해질 때까지 교사는 자신의 기질도 잘 살펴야 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아이들의 말에 잘 걸리는 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런 성향의 아이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질의 건강한 면을 친구들과 잘 키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수업전략이 성공하려면 자신의 기질과 학습성격유형 그리고 학생들의 기질과 학습성격유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습과 수업진행의 걸림돌인 학습행동유형 9가지를 잘 이해하면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강의식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잘 준비된 수업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만나는 아이들 중 나와 잘 수업방식이 잘 맞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선생님께서 만나는 아이들 중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이런 질문만으로도 교사가 선호하는 수업방식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03. 질문하는 수업에서 발견하는 학생들의 재능과 끼

일상이 수업과 연결이 되고, 수업이 일상으로 연결이 되는 교육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일상과 수업은 단절되어 있고 아이들은 수업이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학교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이나 혹은 졸업을 하고 나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특정한 취미를 가지거나 잘 하는 분야를 찾는 것이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간다고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질이 잘 드러난다면 자신의 끼와 재능은 찾기가 쉽습니다. 수업은 어쩌면 단순한 지식을 먼저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탐구해가는 과정은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을 발견해가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인 교사들은 그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양념하고 요리해가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아이들이 함께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는 수업에는 여러 가지 작업도 함께 합니다. 행동형의 아이들은 즉흥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외향형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만 분위기 메이커로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므로 발표 등 건강한 경쟁이 필요할 때 모둠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규범형의 아이들은 규칙을 선호하므로 지나치게 밖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잘 통제하기도 하고 시간내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둠을 다독거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규범형은 모범적이므로 팀원 전체에게 골고루 관심을 돌려서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구조화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으므로 토론수업에서는 교사의 보이지 않는 도우미 역할도 할 것입니다.

탐구형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생각과 읽은 책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거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토론에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형들은 인간중심으로 이상향을 좇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의 말에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이입을 잘하므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주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기분좋은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상상에 의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러한 관점의 질문들이 많으므로 다른 성격유형의 친구들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느끼게 해 줍니다.

또한 각 유형이 하나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면에서는 리더형, 참모형, 배려형등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교육에서 성격유형마다 이런 관계성을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성향까지 교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 진로교육은 저절로 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재치와 끼등은 말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과 사회성을 친구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교사의 관심까지 곁들이게 된다면 학생들은 교실수업자체가 사회를 제대로 배우는 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사람에게서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 말을 하면서 즉 자신을 잘 드러내면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해야 잘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시간이 잠시가 아니라 수업시간 내내 지속될 수가 있다면 아이들은 행복한 수업,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은 아이들 개개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